

닭고기 소비유도캠페인 추진상황

전국 순회 닭고기요리 강습회 착수

- 주부들, 닭고기의 이점과 타육류보다
요리종류의 다양함을 새삼인식 -



관련업계의 후원많아

본회는 지난 4월 2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정한대로 수입최고기소비를 닭고기로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미 본회이사및 회원, 미사료곡물협회(지부장:박영인), 미대두협회, 한국 사료협회(회장:정태원),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최죽송) 그리고 관련업계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기금으로 추진되는 본 캠페인은 수입최고기소비를 닭고기로 유도하므로서 육류수급을

안정시키고 육류의 국내자급도를 제고하므로서 닭고기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원색닭고기요리 그림엽서 발행

이에 본회는 지난 6월 1일 수입 최고기와 닭고기의 가격및 단백질함량 비교표와 함께 요리방법, 수입최고기대신 값싸고 영양많은 닭고기를 먹자는 표어가 실린 원색 닭고기요리 그림엽서를 1차로 5만부를 발행, 소비자에게 배포하였다.

닭고기요리강습회 성황

또한 값싸고 영양많고 맛있는 닭고기를 이용하여 한국인기호에 맞는 새롭고 합리적인 조리교육을 실시하므로서 국민의 식습관을 보다 진전하고 경제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폭넓게 닭고기소비의 저변확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회장:왕준연)와 공동으로 전국 6개 도시에서 20회의 닭고기 요리강습회및 콘테스트를 실시하

대한양계협회 소식

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 7일 서울 지역의 한국 요리학원을 비롯하여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주 여성회관에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구 명성예식장에서 닭고기 요리강습회와 콘테스트를 실시했으며 광주, 부산, 대전, 서울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습회는 일간지, 라디오, 전단에 의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많은 주부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이자리에서 왕준연회장은 유모어썬인 재치있는 강의로 닭불고기, 닭점등의 요리를 소개하면서 값싸고 지방이 적고 단백질함량이 높은 닭고기를 이용하느라 소비절약시대를 사는 주부들이 경제적이고 건전한 생활의 지혜를 발휘하고자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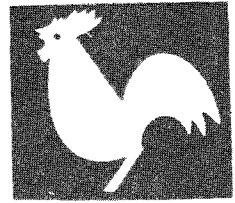
닭고기의 요리종류가 다양함을 인식

강습회에서는 본회가 발행한 8종류의 원색 닭고기 요리 엽서가 교재로 주부들에게 배부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많은 주부들이 강습회에 참석하므로써 닭고기는 조리가 번거로운 점은 있으나 약간의 노력으로 최고기나 돼지고기보다 훨씬 다양하게 별미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요리에 자신을 갖게 되었다는 소감과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주지역의 「닭고기요리 솜씨대회」에는 모두 24명의 주부가 「전주식 폐백닭」을 비롯한 30종류의 특색있는 요리를 출품하여 각기 솜씨를 자랑했다

동 콘테스트는 왕준연회장을 심사위원장으로





로 하여 본회 전북지부의 박옥용부지부장, 정병운간사, 김석삼, 박인수 분과별 위원과 여성회관간부등이 심사위원으로 출품요리들을 심사하였는데 특히 200여명의 주부들과 더불어 김정기 전북도청 식산국장과 채낙천 보사국장이 참관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전주 MBC방송이 진행상황과 왕준연회장의 인터뷰 내용을 중계차로 방송하였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에 김숙자주부 (전주시 인후2동 9-3)의 닭고기 계란덮밥이, 우수상에 이명숙, 최기효주부의 닭구이조림과 닭불고기가, 장려상에 최영순, 박희자, 윤영덕주부의 폐백닭이 선정되었다.

일간지를 통한 홍보강화

한편 본회는 왕준연회장의 협조를 얻어 6월 7일자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6월 21일자 신아일보와 매일경제신문에 닭고기의 장점 및 요리방법을 게재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계속할 계획이며 또한 7월 초 닭고기와 계란에 관한 홍보팸프렛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7월중 닭고기요리강습회 계획

대전지역 : 7월 6일~7일 충남여성회관
 광주지역 : 7월 10일~11일 전남여성회관
 부산지역 : 7월 18일~21일 미화예식장

본회와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는 7월중 닭고기요리강습회와 콘테스트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는데 해당지역 양계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 | 일 | 시 | 장 | 소 | 비고 |
|----|------------------|--------|--------|---|------------|
| 대전 | 7월 6일(금) | | 충남여성회관 | | 강 습 회 (2회) |
| | ① 10시30분② 14시30분 | | | | |
| | 7월 7일(토) | 10시30분 | " | | 콘테스트 |
| 광주 | 7월 10일(화) | 10시30분 | 전남여성회관 | | 강 습 회 |
| | 7월 11일(수) | 10시30분 | " | | 콘테스트 |
| 부산 | 7월 18일(수) | 10시30분 | 미화예식장 | | 강 습 회 |
| | 19일(목) | " | " | | " |
| | 20일(금) | " | " | | " |
| | 21일(토) | " | " | | 콘테스트 |
| | | | | | |

'79년도 본회 하계강습회 개최예정

- 7월 17일부터 27일까지 7개지역서 -

본회에서는 양계농가의 합리적경영과 사양기술의 향상, 질병예방의 효율적방법, 계열화육성, 관리의 과학화, 사료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하계강습회를 7월중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17일(화) : 영주 21일(토) : 부산
 23일(월) : 서울 24일(화) : 전주
 25일(수) : 광주 26일(목) : 홍성
 27일(금) : 안성

2. 내용

- 가) 양계불황의 원인과 대책
- 나) 양계업계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 다) 닭질병방제에 대한 제문제점과 대책
- 라) 양계산업안정과 계열화생산
- 마) 선진국 양계산물 유통

3. 강사

오세정(본회회장, 건대축대교수)
 오봉국(서울농대교수)

대한양계협회 소식

박영인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장)

박근식 (가축위생연구소 제역과장)

세 라 (미국대두협회 축산사료기술부장)

* 개최장소 및 시간은 추후 발표 예정. (본회소식참조)

중계수급 조절위원회 개최

79년도 5월말현재

중계 991,545 수 입식 -

지난 5월31일(목)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금년도 제 1 회 중계수급조절 위원회에서 금년도 부터 중계사육 농가에서 중계의 자율적 입추조절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중계 입식 상황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소식참조)

5월말 현재까지 99만수에 이르는 많은 물량이 입식되어 78년도 동기간에 비하여 79.9%를 나타냈다.

일반 중계장에서는 금년도 전반기에 P.S. 입식수수가 78년도 동기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9% 밖에 감소되지 않아 금년도 각종 에너지 파동과 함께 현저히 위축된 소비에 비하여는 너무 많은 중계가 입식되고 있는 것으로 위원들은 분석했다

또한 작년도 전반기에 중계입식 수수가 서서히 감소되었으나 금년도에 들면서 다시 중계 입식수수가 불어나기 시작해서 이러한 상태로 계속 중계가 입식된다면 현재 극도로 침체된 업계의 경기가 회복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므로 중계장, 부화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물량을 조절하여

입추할 것과 중계 노제는 일찍 도태시키는 것을 촉구했다.

본회 제주지부 정기총회 개최

- 지부장에 김철수씨 -

본회 제주지부(제주시 건입동 1430-3)는 지난 5월28일 제주도 소재 서울 미락에서 회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79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하여 김 철수씨를 지부장으로 선출하고 임원을 개선했다

임원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 부 장 : 김 철수

부지부장 : 이 영배 (우리양계장)

강 태호 (대중부화장)

간 사 : 김 태열 (태홍가축약품)

운영위원 : 고경무, 고 평, 이태종, 고안근,

윤태현, 현석암, 양재희, 고병주,

현영기, 이남수

감 사 : 송중호, 현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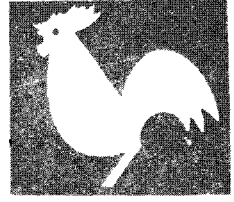
본회, 양계친목회개최

- 업계원로들로 구성된 同心會 발족 -

본회는 지난 6월 2일(토) 오후 3시, 안양소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양계업계의 원로들을 모시고 양계업계 친목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합에는 이 정희 초대회장(한국부화협회, 1964년)을 비롯하여 모두 20명의 원로가 참석, 오랫동안 낯익은 얼굴들을 맞대고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인사들은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양계산업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



기 위해서 친목회를 구성할 것을 발의, 명칭을 同心會라고 정하고 회장에 김 원복씨(호성부회장), 부회장에 이 정희씨를 선출하였으며 김 원복회장은 민 덕기씨를 간사로 임명하였다. 정기모임은 2개월마다 매짚수달 첫째 금요일에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후 가축위생연구소 뒷뜰 잔디밭에 마련된 조촐한 연회 석상에서 참석원로들은 서로의 근황을 묻고 업계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마냥 흐뭇한 표정으로 회포를 풀었다.

이날 구성된 동심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회 장 : 김 원복

부회장 : 이 정희

간 사 : 민 덕기

이 창열, 강 금로, 김 현배, 김 영희, 오 봉국, 이창구, 이 선영, 이 남표, 박 도현, 이 제조, 이 필용, 김 영석, 최 창해, 이 규상, 오세정, 이 재근, 박 근식(이상무순)



금년도 하반기 부화장정기검사에 대비 기장철거

—미등록종계 등록을 필해야 할것—

농수산부에 의하면 오는 8월에 실시할 금년도 하반기 부화장 정기검사에는 지난 5월에 농수산부가 실시한 전국부화장 점검결과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철저히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각 부화장, 종계장은 ① 미등록종계를 필히 등록할 것과 ② 제반 장부와 일지를 구비함과 동시에 정확한 기장을 할 것과 누락된 부분은 소급해서 기록을 보완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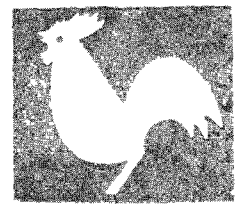
통계조사 전담기구 시급히 필요하다.

— 6 월 19일 양계통계조사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양계분야의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간담회가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부터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회 노영한 편집국장 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지금 처럼 양계업계가 극심한 불황을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은 정확한 통계의 부재에 기인되고 있어 무엇보다 양계관계통계의 적극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통계조사를 저해하고 있는 요인과 이에 대한 해결책 또는 통

대한양계협회 소식



계의 조사방법에 관해 2 시간동안 논의 되었다.

이날 김영환(신흥부회장 대표, 본지편집위원장)씨는 통계조사에 보다 현실적인 세무문제가 관련되어 보유수수를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는 점과 초생추출하수수의 보고에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는 등, 통계수집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최창해(본회 채란분과위원장) 이사는 통계조사는 강제성을 더해야만 정확해 질 수 있으며 외국계 도입을 쿼터제로 하였을 때 좀더 확실한 수수를 보고한 것으로 미루어 정확한 수수를 보고한 사람이 어떤 이익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경남(농수산부 축산과)계장은 일부 양계인들이 통계는 농수산부나 협회에서 필요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생각, 방심하고 있으나 실은 양계인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며,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해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김철호(축산진흥회 조사부)계장은 체계적인 통계조사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순수한 통계 조사 업무만을 위한 기구가 양계협회내에 설치되어 이에 농수산부와 축산진흥회가 적극 참여하는 형태로 통계조사업무가 실시되어야 한다는데 결론을 모았다.

主婦生活, 달걀반찬을 주제로 별책부록 발행

폭넓은 여성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월간 여성잡지 主婦生活社(발행인: 김 영수)에서는 「값싸고 빠르고 다양한 달걀 반찬」이라는 표제로 주부생활 7월호 별책부록을 발행했다.

이 책자는 총 76페이지로서 원색화보와 더불어 달걀반찬 50선, 약이 되는 달걀음료, 영양풍부한 간식, 빠르고 맛있는 아침식사 등 총 81 종류의 달걀요리 종류를 왕 준연 회장(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을 비롯한 3명의 요리 전문가가 소개하고 있다.

